

제56호(2013.4.25)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

송 미 령

1. 농촌 일자리 현황	3
2. 농촌 일자리 창출의 유형과 사례	8
3. 시사점과 정책 과제	12

감 수:	김정섭 연구위원	02-3299-4252	jskkjs@krei.re.kr
내용 문의:	송미령 연구위원	02-3299-4351	mrso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농촌의 일자리는 2010년 기준 482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24.7%를 차지함.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전체 일자리 수는 1601만 명에서 1949만 명으로 연평균 2% 증가하였으나, 농촌의 일자리는 연평균 0.32% 증가하였음. 농촌의 일자리는 농업 부문에서는 감소하고 비농업 부문에서 증가하였음. 비농업 부문에서도 주로 제조업과 보건·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내수경제 관련 업종의 일자리는 줄었음.

농촌의 일자리는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등과 관련한 정책 성과도 아직은 도시보다 높지 않음. 그러나 농촌의 자원을 연계한 농촌형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 많고 창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시보다 비교우위가 있음.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화 유형,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지역산업화 유형,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제공하면서 그로부터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음. 대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바탕이 되었고, 마을조직이나 단일기업 형태로 조직화되었을 때 운영 성과가 높았으며, 결국 재화나 서비스 품질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담보됨.

농촌 일자리는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유지의 조건이며, 따라서 지속성·현장성·시장성을 갖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농림어업 및 농공단지 등 기존산업의 약점을 개선하여 일자리 유지에 힘써야 하며, 농림어업을 바탕으로 하는 6차 산업화에 노력해야 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기간 정책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범주의 중간지원조직도 육성해야 함. 공공서비스 분야 재정 지출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고,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농촌의 고용 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해 지역별 ‘일자리SOS창구(가칭)’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직업 발굴 및 그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자격증 제도 도입, 일자리 시장과의 연계가 중요함.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효율화될 수 있음.

1. 농촌 일자리 현황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와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였음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는 농업 부문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의 한계를 보완함

□ 농촌의 취업자 수는 2010년 기준 482만 명으로 전국 취업자 수의 24.7%, 도시에 비해 증가 속도가 느림

- 농촌의 취업자 수는 482만 명이며, 농촌의 취업자 가운데 32.1%인 155만 명의 일자리가 농업 부문에서 발생함
 - 2010년 전국 일자리에서 농촌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이며, 2000년의 29.1%에 비해 4.4%p 감소
- 농촌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은 0.32%로 도시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 2.61%보다 현저하게 낮음
 - 행정구역상 농촌으로 분류되는 읍·면 중에서도 읍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한 반면에 면의 취업자 수는 감소함

표 1. 취업자 수 변화(2000 ~ 2010년)

단위: 천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감율 (총 일자리)
	전체	농업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전체	농업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전체	농업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도시	11,346	282	11,064	12,667	303	12,364	14,676	299	14,377	2.61%
농촌	4,666	2,126	2,540	4,602	1,819	2,783	4,817	1,547	3,270	0.32%
-읍부	1,528	384	1,144	1,653	372	1,282	1,838	332	1,507	1.86%
-면부	3,138	1,742	1,396	2,949	1,447	1,502	2,979	1,215	1,764	-0.52%
전국	16,012	2,407	13,604	17,269	2,121	15,147	19,493	1,846	17,647	1.99%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감소,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

- 농촌의 일자리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많이 창출됨
 -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 분야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병원’ 등 보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도 특징
-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함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종합 소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등에서 무려 53,706명의 일자리 감소
 - 읍·면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내수경제’ 위축을 보여주는 것

표 2. 농촌에서 일자리가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분야(2000~2010년)

단위: 명, %

일자리가 증가한 부문			일자리가 감소한 부문		
산업	증감량	증감률	산업	증감량	증감률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6,672	127.7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1,602	-34.6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5,991	97.0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9,840	-84.6
자동차 부품 제조업	42,570	79.8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4,452	-90.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42,249	213.9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658	-5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5,210	106.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2,876	-27.6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312	89.5	종합 소매업	-11,719	-15.3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6,701	380.6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0,587	-32.7
전자부품 제조업	24,845	83.8	보험업	-9,461	-45.7
숙박시설 운영업	23,901	76.8	어로 어업	-9,354	-96.6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22,352	74.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8,770	-38.7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2,263	79.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7,508	-25.7
병원	21,364	135.5	은행 및 저축기관	-6,470	-13.5
초등 교육기관	21,311	34.0	섬유 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6,173	-40.2
1차 철강 제조업	19,043	150.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5,807	-63.0
토목 건설업	17,596	77.6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3,876	-38.5

- 1)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을 기준으로 세세분류 단위에서 2000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재집계함
 - 2)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함
 - 3) 일자리가 증가한 부문은 증가율 30% 이상 지역 중 증가량 상위 15개 부문임
 - 4) 일자리가 감소한 부문은 감소율 상위 15개 부문임
 - 5) 분석에서 농업종사자는 제외함
 - 6) 어업 관련 산업 일자리 수가 2000년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개인
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는 전국사업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농촌형 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6차 산업화 가능성을 암시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자리가 증가한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농촌의 경관을 활용한 요양 및 관광 산업,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이는 농업·농촌의 특성을 적극 살린 6차 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표 3. 농촌형 일자리 증가 지역 사례(2005 ~ 2010년)

시·도	시·군	일자리 증가 산업(증가량, 증가율)
인천시	강화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330명, 611%)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342명, 338%)
		관광숙박시설 운영업(471명, 86%)
강원도	횡성군	한식음식점업(184명, 20.2%)
전라북도	진안군	직업재활원 운영업(86명, 8600%)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22명, 2200%)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160명, 1067%)
	장수군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63명, 974%)
	임실군	기타 식품 제조업(257명, 144%)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145명, 167%)
	순창군	장류제조업(59명, 13.6%)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84명, 247%)
전라남도	신안군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9명, 1362%)
경상북도	의성군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49명, 81.7%)
	청도군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30명, 619%)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94명, 2350%)
	성주군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70명, 23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농촌에는 새롭게 설립되는 사업체 수는 도시에 비해 적지만, 설립된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 도시에서는 2006년 이후 총 184만 개의 사업체가 새롭게 설립되었으나 (2006년에만 39만 개의 사업체가 설립), 그 가운데 2010년까지 남아있는 사업체는 45.1%에 불과함

○ 농촌에서는 2006년 이후 총 30만 개의 사업체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2006년 총사업체 수의 51.8%에 해당함. 2006년에 설립된 사업체는 6만 개 가량인데 56.9%가 2010년까지 유지되었음

표 4. 도시와 농촌의 창업 안정성 비교

단위: 개

구분	신규 창업 사업체 수 (2006년) (A)	2010년까지 잔존한 2006년 창업 사업체 수 (B)	B/A ¹⁾
도시	386,421	174,222	45.1%
농촌	62,570	35,608	56.9%
- 읍부	34,882	18,145	52.0%
- 면부	27,688	17,463	63.1%
전국	448,991	209,830	46.7%

1) B/A: 2006년에 창업한 사업체 중 2010년에 폐업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업체의 비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임금노동자 수는 적고, 영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위주 농촌 일자리 구조

○ 농촌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혹은 ‘무급 가족 종사자’인 주민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음

- 임금노동자는 비교적 적은 편
- 임금노동자 중에는 ‘상용종사자’가 ‘임시 및 일일 종사자’보다 많음. 도시와 비교해도 ‘임시 및 일일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편

표 5.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직업 종사상 지위 비교(2010년)

단위: %, 천 명

구분	상용 종사자	임시 및 일일 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도시(일반시)	48.5	28.0	6.8	13.2	3.6	16,159
농촌	39.8	20.3	5.4	23.8	10.7	8,856
-군	25.8	14.6	4.0	36.3	19.2	2,264
-도농복합시	44.6	22.2	5.9	19.6	7.7	6,592

1) 군과 도농복합시는 농촌으로, 일반시는 도시로 구분함

2)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 농촌의 일자리는 도시의 동종 산업 부문 일자리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편

○ 비농업 부문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체계의 대분류상 모든 업종에서 2010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농촌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농촌 일자리 창출의 유형과 사례¹⁾

□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6차 산업화 유형, 신지역산업화 유형, 사회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업에 기반을 둔 6차 산업화 유형은 1차 농림어업생산물을 바탕으로 가공·유통·농촌관광 등을 추진하는 형태임

- 충남 (주)예산사과와인, 강원 홍천·횡성 제철꾸러미사업 등

○ 농업·농촌 관련 자원을 활용한 신지역산업화 유형은 경관이나 문화재와 같이 그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함

- 제주 동백마을, 전북 임실 치즈마을, 강원 인제 용대 백담마을 등

○ 사회서비스 유형은 농촌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와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인력 수급 불일치 완화나 해소 사례 등을 포함함

- 경북 안동 유은복지재단, 전북 남원 새벽영농조합법인 등

□ 6차 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인력육성 프로그램,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

○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주)예산사과와인은 2만여 평의 사과농장인 은성농원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사과를 원료로, 캐나다에서 와인생산 기술을 전수받은 부대표가 사과와인 등 사과 가공 상품을 생산함

- 사과 가공 상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유럽식으로 정비된 와이너리와 농가숙박, 사과따기 체험, 사과파이 만들기, 사과와인 담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2012년에는 제9회 예산사과축제를 주관하여, 외국인 1000명을 포함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역별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를 8개 시·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여기서는 시·도연구원을 통해 추천받은 78개의 농촌 일자리 창출 사례를 살펴보았음

한 1만 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

- 현재 고용인력은 총 6명으로 주로 생산, 사무, 운송 업무를 담당
- 지역 내에서 훈련된 연구개발 관련 인력은 고용하지 못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제철꾸러미사업은 2009년 4월 강원 횡성군 여성농민회 5농가가 자신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제철농산물을 소비자 21가구에 택배로 보내는 로컬푸드 사업에서 시작됨

- 현재는 강원도 홍천과 횡성, 경상북도 안동과 상주, 전라북도 김제, 전라남도 순천과 나주, 제주도 등 12곳 지역공동체의 110여 명에 이르는 생산자 회원이 도시 소비자 1000명 회원에게 공급하고 있음
- 횡성 공동체농업지원센터의 2010년 총 매출액은 3억 6000만 원 정도이며, 횡성 오산공동체에 참여한 농업인은 2012년 기준 1인당 월평균 4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음
- 연령이 50~70대인 여성농업인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비록 높은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농업소득 외에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참여자 만족도가 높음
- 농업 기반이 취약한 소농들의 협력에 기초한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농업인단체가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여 농촌 일자리와 소득 향상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지역산업화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는 지역자원 발굴, 리더 육성, 공동체의 협업 구조 형성

○ 제주 표선면 신흥2리는 마을 가운데에 위치한 제주도 지방 문화재 제27호인 동백나무 군락지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함

- 2007년 5월에 ‘동백마을’ 선포식
-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동백고장보전연구회’는 지난 2009년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90여m² 규모의 저온저장고와 가공시설을 갖춘 동백마을 방앗간을 건립함. 제주의 동백열매를 활용하여 동백고장보전연구회 소속 주민들이 동백 꽃과 열매를 채집하여 ‘동백기름’을 직

접 생산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총 380명의 고령자 일자리와 13명의 마을 주민 일자리를 창출
- 주민들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고령자들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삶의 활력 및 만족도 증진에 기여

○ 강원 인제 용대2리는 백담사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1996년 백담사의 협조를 얻어 신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자회사로 ‘용대향토기업’을 설립함

- 버스 2대로 시작한 용대향토기업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져 2012년 현재 버스 10대를 운행
- 그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나 고정 기사 10명 외에 예비 기사 2명, 그 밖에 관리직 5명 등 총 17명을 정규직으로 고용
- 매년 약 80만 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약 16억 원의 매표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 5000만 원을 마을 교육 및 복지 사업에 지원

□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부문 사업체가 자립할 때까지 안정적 지원이 필요

○ 농촌에서 사회서비스 유형 일자리는 주민들이 사회서비스 관련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함께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서,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임

○ 경상북도 안동 유은복지재단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으로서, 2002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2004년부터 새싹재배 및 판매사업을 시작함

- 주 생산품목은 새싹채소, 어린잎, 콩나물 등
- ISO9001과 ISO14001인증을 받은 고품질 무농약 친환경 제품을 생산
- 전체 71명의 직원 가운데 일반관리직원·시설직원 등 21명은 사회복지사로 구성
- 고령자, 새터민 등 취약계층 고용이 5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이 중 1, 2급 중증장애인이 29명임

-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7~8년 이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량 확대 등 사업신장으로 2012년도 하반기에 6~7명 신규 인력을 채용
 - 새싹채소의 차별화된 품질관리, 경쟁력 있는 가격 및 안정적 공급으로 사업이 안정단계에 이름
 - 특히, 고용된 인력이 주로 장애인이며 일반관리직과 동일한 인사, 급여관리체계를 따르고 있어 선도적인 사회적 일자리 모델로 평가
 - 그러나 취급품목은 농산물임에도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지자체 및 농정 분야 사업 연계가 어려우며,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전북 남원 새벽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2년부터 남은 음식물 및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지역순환농업 시스템에 투입하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중임
- 수거한 남은 음식물로 돼지를 키우고 음식물 쓰레기로는 퇴비를 만들어 채소를 재배
 - 생산품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팔려나가지만, 지역 내의 직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거나 지역 내 ‘사회적 유통’을 통해 근거리 공공기관에 납품
 -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가는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구축
 - 2012년 기준 퇴비사, 돈사, 유기농업, 시장교섭, 음식물분리수거 등 업무무를 담당하는 일자리 100개를 만들고, 자활공동체 10개를 창업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민간위탁 처리비 1억 30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둠

3. 시사점과 정책 과제

3.1. 요약 및 시사점

□ 농촌의 일자리는 소득기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 생활에 필요한 내수 서비스의 공급처이자 지역사회 유지의 최소 조건

○ 농촌의 일자리는 단지 농촌 구성원의 소득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농촌의 인구와 일자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농촌 인구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농촌의 일자리 및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농촌 취업자의 근로 형태는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와 고용주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내국인의 농작업 기피와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농업 분야 고용 할당량이 부족하여 인력 수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
- 농촌의 일자리 문제는 단지 주민 개인의 취업이나 소득 기회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 공급 그리고 농촌 인구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현재 농촌의 일자리는 인구 대비 적은 편은 아니나, 일자리 증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낙관적이지는 않음

○ 농업 부문 일자리 비중이 낮아진 반면, 제조업과 3차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아짐

- 도시 주민들의 읍·면 지역으로의 통근 취업자 수로 미루어 추측컨대, 제조업 및 3차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증가한 일자리에 주로 농촌 주민들이 취업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
-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여 농촌 생활 여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농촌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도시에 비해 열악

- 고용 보험 등 근로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가족노동 중심의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음
-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비농업 부문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있음

□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지속성’, ‘현장성’, ‘시장성’을 지향해야 함

-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화 활성화형,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지역산업화형,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어떤 지역에서는 농촌형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지속성이 있다는 점은 농촌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모색의 단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의 일자리와 함께 창출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창출된 일자리가 휘발성 일자리가 아니라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필요한 일자리가 되도록 기획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지원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라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지원해야 함
 -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수한 인력에게 정부에서 정당한 대가를 보전해주는 것도 필요

3.2. 정책 과제

□ 첫째, 농촌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

- 농촌의 일자리에서 바탕이 되는 부문은 역시 농림어업임에 주목하고 농림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2·3차 산업으로서 식품가공 및 농촌관광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
- 3·5년 정책사업 기간이 지나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을 지원할 다양한 범주의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함
 - 중간지원조직에게는 농촌에 맞는 일자리를 기획하는 데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을 투입하는 동기를 부여,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역내외 자원의 네트워킹, 모니터링, 홍보 등의 역할 담당
- 교육, 빈곤층,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유지 방안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의 적합한(실질적인) 대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농촌의 일자리 시장을 튼튼하게 할 필요
 - 현재의 일자리, 창출된 일자리의 안정적 지속이 가장 중요

□ 둘째, 농촌의 핵심적인 고용 창출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부문 일자리 유지·개선·창출을 위한 다각적 접근 모색

- 농업경영자는 감소하지만 농업 부문의 관련 일자리는 증가함을 상기하여 농업 부문의 고용 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함
 - 농업인턴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젊은 인력이 농업 부문에 신규 취업·창업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
 - 젊은 취업자들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인큐베이팅을 지원
 - 전통적 농업 부문에 가공·서비스업 결합을 통한 6차 산업화 추진을 통해 일자리 확대

- 농업 부문의 일자리로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자유업을 하는 이들이 농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농촌의 유희화·미이용·저이용 시설들을 리모델링하여 정보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진 전자마을(tele-cottage)을 운영하거나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셋째, 농촌의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SOS창구(가칭)’를 도입 운영

- 계절적인 필요 노동력 수요와 향토기업 등에 필요한 숙련 노동력 수요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해당 지역에 귀농·귀촌하여 정착하려는 이들이나 혹은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이 지역별 ‘일자리SOS창구’에 상담·구직 신청하도록 하여 지역 내 노동시장과 연계를 추진함
 -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 추정 및 신뢰할 만한 처우 보장 등까지 고려할 필요

□ 넷째,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 및 농촌의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직업들을 발굴하고 관련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자격증 제도 도입, 일자리 시장과의 연계 등 촉진

- 농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은 보육서비스, 직업훈련산업, 고용지원서비스산업 등임
- 귀농·귀촌, 농촌관광, 로컬푸드 등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농촌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 영역을 발굴
 - 이미 직업으로서 정착된 와인 소믈리에에 비견될 만한 사케 소믈리에, 채소 소믈리에, 쌀 소믈리에 등이 등장
 - 반려동물, 애완동물의 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 등장 등

□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투자 유치를 포함한 재정적 지원, 중간지원조직 육성, 시장 형성,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집중하는 ‘장기적이고 큰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진단에 따라 그 지역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창출과 관리, 신뢰와 협동에 바탕을 둔 주체 간 협력에 주력해야 함
 - 과거에는 기업을 유치해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는 등 자본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서비스산업, 정보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등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아이디어 및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새로운 기업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상기해야 함
 -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는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창조적 인재이며, 이 창조적 인재를 일자리를 쫓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장소를 찾아 움직임. 따라서 창조적 인재가 선호하는 장소를 여하히 만드는가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발전의 새로운 축임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송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4. 24

발 행 2013. 4. 25

발 행 인 최세균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55-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